

블루오션 중동 관광시장 공략 '속도' 도, 1~6일 아랍에미리트 등 현지서 홍보 마케팅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케이-트래블 위크(K-Travel Week in UAE) 행사에 참가해 제주 관광 홍보 마케팅을 전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는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중동시장에 대한 관광에서 체제 일수와 소비수준이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소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웰니스 등 제주 관광자원 등에도 높은 관심을 드러내는 만큼 제주의 해외관광객 유치 다변화에 잠재지역으로 손꼽힌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민선8기 도정 핵심정책인 아세안 플러스 알파(+α) 정책을 중동지역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도는 '한국 관광의 밤 행사'에서 제주홍보 영상과 발표를 통해 제주올레, 웰니스 등 제주관광 정보를 공유하고, 현지 최대 쇼핑몰 중 하나인 페스티벌 시티몰에서 열린 '제주관광퀴즈쇼'에서 제주해녀, 한라산, 케이-드라마·뮤직비디오 촬영지 등을 홍보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서귀포시, 다중이용시설 집중 안전점검 내달 16일까지 여객터미널·체육시설·공연장 등 대상

서귀포시가 오는 6월 16일까지 여객터미널을 비롯 체육시설과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

시는 최근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4.17.-6.16.) 운영에 따라 지역 내 여객터미널을 비롯해 체육시설,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148곳에 대해 도목·전기·가스·소방·건축분야 등의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필요에 따라 보수·보강을 요하는 시설은 관리주체 및 공공기관의 가용재원을 활용해 조치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장시간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이력을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홍보 강화는 물론 서귀포시장과 부서장을 비롯한 시설물 담당 부서장이 직접 참여하는 점검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일, 오임수 부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민간전문가(교수, 기술사)로 구성된 민간합동점검단이 제주월드컵경기장의 시설물 안전상태 점검에 나섰다. 점검단은 관람석 등 시설물 안전관리, 화재취약요소 등을 집중 점검했다.

백금락기자 haru@ihalla.com

“행정체제 개편 방향성 명확히 제시해야”

도, 어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전문가 토론회 개최 “기초단체 부활 때 도-기초단체 간 정책 대립도 우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관한 공론화 절차가 한창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 도민 피로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도민 공론화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의 기초발제에 이어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토론회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인 김광구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행기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순은 서울대학교 글로벌행정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 김승중 제주일보 논설실장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 개편 이후 생길 수 있는

정책 대립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개편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해 도민들의 피로감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행기 교수는 우선 “현행 체제 개편에 찬성하는 공무원과 주민들의 기초자치단체 설치 요구는 복제주군과 남제주군의 부활이 아니라,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할 경우, 제주도라는 아이덴티티를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도와 기초 간 정책 대립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역 정치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한 의견도 나왔다.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은 “최근 여러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지 않고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과 특례를 유지 또는 확대하면서



제주자치도는 9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자치도 제공

도 주민이 직선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또 “비용 과다와 지역 분절을 초래할 수 있는 5~6개 이상으로 구성되는 행정구역의 크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 행정구역의 개수에 더해 기관구성 다양화까지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 논의와 의사결정을 어렵고 복잡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결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과 함께

도민 피로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동정책센터장은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국회에 입법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오 지사의 공약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고, 도입을 하려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가능인데, 이를 위해선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15억 원을 들여 행정체제 개편 역량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15억 도민 세금을 날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다혜기자

‘찰광어’ 국산 종자로 양식 가능성 열렸다

도 해양수산원, 수정란 시험 보급해 종자 생산 전망 중국 수입에서 의존도 낮출 가능성 확인

일반 광어보다 육질이 찰지고 단단해 ‘찰광어’(찰진 광어)라고 불리는 ‘터봇’의 국산 양식 가능성이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터봇의 완전 양식을 위해 수정란을 시험 보급한 결과, 도내 민간 배양장에서 대량으로 터봇 종자 생산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터봇 종자는 전량 중국에서 수입해 양식을 이어 왔다. 국내에서는 터봇 관리가 어렵고 수정란이

생산되지 않아서다.

도 해양수산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어류 양식산업에서 광어 생산량은 87.6%(2021년 기준)로, 단일 어종 양식에 편중돼 소비시장 여건 등 양식환경 변화를 위해 새로운 양식대상종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내 일부 양식장에서는 연중 일정한 수온(17~19℃)을 유지하는 지하해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해 냉수성 어종인 터봇을 양식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생산되는 터봇은 미국, 캐나다,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인기가 높아 매년 활어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터봇의 가격은 kg당 2만 6000원으로, 광어(kg당 1만 원)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고형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제주 양식어류의 다변화를 위해 터봇 수정란 보급량을 확대하고, 종자생산 기술을 지원해 종자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이·미용업소 717곳 대상 서귀포시, 위생서비스 점검

서귀포시가 오는 10월까지 지역 내 영업 중인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현장 평가에 나선다.

시는 이·미용업소 717곳(이용업 65, 미용업 652)을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현장을 방문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평가항목은 ▷영업신고증, 면허증, 요금표 게시 여부 ▷소독 장비 비치, 이·미용기구 관리 ▷청결 상태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해 업소에서 준수해야 하는 항목과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권장사항 항목으로 업종별 25~29개 항목이다.

백금락기자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어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전망 좋은 신종 감귤 만감류 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윈터프린스** : 차별화된 맛과 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 탐나는봉** :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료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자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 사라향** :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순에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 하레조생** :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공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 제라몬** : 함량 및 높이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절로 평가되는 품종.
- 미니향** :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능률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공천, 흥진, 키라향, 산화향(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허귤, 팔삭, 세미봉, 금귤, 당유자, 야마노스 미니몬, 국내산 행사묘목 판매(연간 10월~12월)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 사전예약 주문생산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종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종묘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 991번길1(수산리735)